월요광장



정유진 코리아컨설턴트 대표

심란한 마음이 들 때 청소와 정리만한 좋은 소일도 없다. 결연한 각오로 신발장부터 손을 뻗었지만 정리 는 커녕 막상 버릴 만한 신발 한 짝도 찾지 못했다. 함 께 신고 걸어온 시간만큼이나 신발에도 인격이 생기는 모양이다. 어린이들을 위해 글을 쓰는 작가 이자벨 블 로다르치크의 '세상이 보이는 신발이야기'의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만큼은 아니지만 내 신발장에도 사연 있는 신발들이 제법 있다.

그 중 가장 애정하는 신발은 올 봄 구두 장인의 손으 로 소생시킨 조리형 여름 신발이다. 지난 12년 동안 신 다가 망가진 샌들은 이제 밑창과 굽까지 말끔하게 교체 되어 앞으로도 몇 년간 더 버텨 줄만큼 튼튼해졌다.

버릴 신발을 간신히 살려내 신는 기분은 남달랐다. 사실 수선비는 새 신발 한 켤레 값과 거의 맞먹었다. 수 선비 청구를 받았을 때는 신발을 그냥 버릴걸 하는 생 각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본래 신발의 형태와 디자인 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애쓰느라 다른 일도 못하셨다는 구두 수선 장인의 말씀과 더불어 이런 비용과 수고스러 움 때문에 수선을 의뢰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말씀이

낡음의 품격

마음을 울렸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듯한 수선비를 내고도 기분이 좋았다. 뭔가 독일에 살 때 본 그들의 모습과 닮았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 독일사람들은 의식주에 사용되 는 물건들을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어떻게든 고 쳐가며 오래도록 썼다. 이유야 단순하다. 전쟁을 연달 아 경험한 독일인에게는 생필품들이 귀한 존재다. 과 거 생활에 필요한 물건이 턱없이 부족하기도 했고 수리 와 수선을 해서 쓰는 것이 새 물건을 사는 것에 비해 경 제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또한 삶의 문화가 되었다. 독일에선 자동 차 번호판 뒷자리에 'H'가 있는 올드타이머 자동차들 이 많다. 적어도 30년 이상 관리가 잘된 자동차에게만 부여되는 이 명예로운 'H'는 세제 혜택이란 경제적 이 익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 이 된다. 낡은 품격을 보여주는 것은 자동차뿐만이 아 니다. 옛 물건을 대물려 주거나 어렵게 구해서 고쳐가 며 쓰는 것이 멋있고 의미있는 일이라 여긴다. 물건 자 체에 집착하기 보다는 시대와 문화의 연속성을 이해하 고 이를 사용자가 더해 만들어가는 삶의 경험을 중요하 게 여기기 때문이다.

유행에 민감한 패션계는 올해 하반기에 들어 크게 바 뀌고 있다. 유난 떨지 않으며 로고를 내세우지 않는 소 위 '조용한 럭셔리'라고 하는 '올드 머니(Old Money)' 스타일이 대세가 될 모양이다. 사실 올드 머니의 사 전적 정의는 '자수성가가 아닌 상속받은 재산' 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패션이나 디자인에서 주목하는 '올드

머니'는 가문과 유산의 유무를 떠나 하나의 스타일이 자 미학적인 트렌드로 우리 생활의 라이프 스타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모든 것이 꼭 그렇지는 않지만 좋은 품질을 내세우는 물건에는 응당한 가격이 있다. 한 예를 들어 올드 머니 의 대표적 브랜드로 손꼽히는 모 의류 브랜드의 옷값은 터무니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높다. 하지만 지속가능성 을 염두에 둔 생산 방식을 들여다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것도 아니다. 업체는 옷감의 원자재가 되는 희 귀동물의 털을 사용하기 위해 멸종위기에 몰린 그들의 야생 서식지를 늘리고 유대감을 쌓은 사람들의 빗질을 통해서만 모은 털로 원단을 직조한다고 한다.

이제 떠오른 유행에 맞춰 쉽게 구매하고 버리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가치 소비에 대한 생각이 더해지 면서 지속가능한 의식주 생활에 대한 관심은 커질 것이 다. 그래서 한가지를 사더라도 제대로 된 것, 오래도록 사용 가능한 것을 사려는 사람들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

이제까지 그래왔듯 유행은 돌고 돌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이번 유행이 물질주의에 대한 과시 에서 벗어나 물건의 원자재인 자원과 환경을 아끼고 품 질을 위해 헌신해온 이들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하는 데에 자극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생각이 영속성을 갖는 생활 문화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일상에 서 물건을 대하는 태도도 함께 달라져야 할 것이다. 가 령 자신이 애정하는 물건을 각자의 방식으로 다듬고 보 살펴 가며 오래 쓰는 일이 될 수 도 있다.

社說

전기차 시대, 정비업계 전문 인력 양성 시급

자동차 정비업계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 다. 정비업계가 엔진 자동차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정비업이 고전압을 기반으로 한 전기차로 패러다임 자체가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정비업계의 위기감은 광주상공 회의소가 운영하는 광주지역인적자원개 발위원회의 조사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 다. 광주지역 307개 정비업체를 대상으 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무엇보다도 정비 업계 종사자의 70% 가량이 50대와 60대 이상으로 고령화 돼 있는 점이 문제로 지

정비업체의 절반 가량(52.2%)이 20년 이상 된데다 대다수인 98.1%의 대표가 직접 정비에 참여할 정도로 영세한 점도 전기차 시대에 대응하지 못하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정비업체 종사자의 절반 가 량(49.8%)이 전기차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패러다임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 되면서 광주지역 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55.9%는 전기 차로 주력 정비업을 변경하고 싶어 하지 만 정비업체 세 곳 중 한 곳에 해당하는 32.9%는 '변경의사가 없다'며 사업을 접 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동네에 카센터가 줄어드는 것에서 정비 업계의 어려움을 짐작했지만 이번 조사를 보니 업계의 위기감이 생각보다 심각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기차로의 패러다임 변화는 비단 정비업계의 위기에 그치지 않 는다. 광주의 주력산업이 자동차이다 보니 완성차업체에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 가 많은데 이들도 전기차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줄 폐업이 현실화 될 수 있다.

> 따라서 광주시는 전기차 시대에 맞게 정비업계의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완성차 협력업체들도 패러다 임 전환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에 힘써야 한다. 업계에서도 선제적으로 재직자를 위한 훈련 과정과 신규 인력 양 성을 위한 교육 과정을 다양하게 편성해 야 할 것이다.

인구 늘리고, 환경 지키고 '탄생수 숲' 확산돼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는 전국 의 모든 지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다.

지방 소멸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자체마 다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가 운데 영광군이 진행하고 있는 '신생아 탄 생 기념숲 나무 심기'가 눈길을 끌고 있 다.

영광군은 출생의 기쁨을 되새기고 출산 문화를 장려,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신생아를 출산한 부모의 신청을 받아 영 광읍 우산 근린공원 일대에 신생아 탄생 수 식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 첫해였던 지난 2019년 영광에서 태어난 534명의 신생아 중 183명이 탄생 수를 심었고 지난해에는 192명 중 96명 이 나무를 심는 등 지금까지 신생아 2175 명 중 933명의 이름으로 다양한 탄생수가

탄생수로는 전나무·왕벚나무·소나무· 지길기대한다.

동백나무 등이 인기가 있으며 탄생수 앞 에는 신생아의 이름과 탄생 축하, 건강 기 원 등 다양한 문구가 적힌 팻말을 세워둔 다. 이에 힘입어 지난해에는 출산율 1.8 을 기록해 전국 평균 출산율의 2배를 넘 겼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 한 자치단체로 꼽히기도 했다.

아쉽게도 영광군의 이 사업은 나무 심 을 토지가 부족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고 하는데 군은 서둘러 대체 부지를 확보 해 사업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탄생수 심기는 각 지자체가 벤치마킹해 볼 만한 사업이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는 탄생수 심기 사업은 출산 문화 를 장려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기후 위 기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인구 늘리기 와 환경 보호,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탄생수 숲 조성 사업이 활발히 펼쳐

수필의 향기



김향남 수필가

오래전 서점에 책을 사러 갔었다. 책값을 계산하고 나오려는데 주인이 불쑥 책 한 권을 더 주었다. 단골이 라고 선심을 쓴 것이었는데, 돌아와 읽어 보니 누군가 의 '틈'을 엿보는 것처럼 은근한 재미가 있었다. 별일 아닌 듯 시시하기도 하고, 진짜 별일인 듯 세찬 호기심 이 느껴지기도 했다. 화장기 없는 민낯을 보는 것도 같 고, 좀체 하기 어려운 부끄러운 고백을 듣는 것 같기도 했다. 모작가의 산문집이었는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가 아주 친밀한 사이처럼 느껴지던 것은 지금도 생생하 다.

나는 늘 '사이'의 일들이 궁금했다. 승리한 정치가의 연설도 좋지만, 선거 전날 그의 아내와 나누었을 이야 기라든가 그의 공적인 행보보다 사적인 시간이 더 알고 싶었다. 유명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영 광스러운 얼굴보다 혼자 있을 때의 표정이 더 궁금했 다. 먼 산의 능선처럼 실루엣만이 아니라, 나무도 보이 고 풀도 보이고 낱낱의 잎맥들까지 환히 볼 수 있도록 그 사이사이를 걸어보고 싶었다.

시를 읽을 때 시도 좋지만 그 시가 지어진 배경이 궁

'사이'의 일

금했고, 소설을 읽을 때 역시 누군가의 속마음을 들여 다보는 것 같아 더욱 솔깃해지곤 했다. 서문이나 발문, 해설 등을 빼놓지 않고 보게 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 였다. 보이지 않는 것들, 말해질 수 없는 것들의 후미진 틈새.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은, 보이는 것도 같 고 보이지 않는 것도 같은 그 '사이'의 일들이 구부러진 골목처럼 나를 손짓했다. 잔치 끝의 뒤풀이거나 무대 밖에서 만난 배우의 얼굴처럼, 진짜 이야기는 오히려 거기 있는 것처럼 보였다.

어린 날, 마을에 간혹 싸움이 벌어지곤 했다. 웬일인 가 달려나가 보면 고함에 삿대질에 멱살까지 잡혀 있기 일쑤였다. 그걸 구경하는 재미가 여간 아니었다. 당사 자들이야 열 받아 미칠 일이었지만 구경꾼은 어디 그런 가. 물론 말리는 사람이 없지 않았지만 그럴수록 싸움 은 더 격렬해졌다. 나는 자리를 뜨지 못했다. 무엇 때문 에 벌어진 일인지 혹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앞뒤를 재보느라 머릿속이 분주했다. 내뱉는 소리만 가지고는 자초지종을 알기 어려웠다. 말은 앞뒤가 잘린 채 파편 처럼 튀거나 주먹이 되어 날았으므로, 그 '사이'를 채워 넣는 일은 관객의 몫이었다. 말해지지 않은 그것이야 말로 싸움의 진짜 이유일 터, 그걸 추정해 보는 것이 관 전의 포인트였다.

이런 일도 있었다. 열여섯 가을이었다. 한 친구로부 터 두툼하게 부푼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뜬금없는 일은 아니었다. 웬일인지 그즈음 나도 모르게 문득문득 그 친구 얼굴이 떠오르곤 했으니까. 때마침 받은 편지가 신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는 것은 기적'이라는 말, 그 말이 딱 들어맞은 것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지, 어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 보고도 못 본 척 그냥 지나가던 사이였지 않은가. 하지만 그보다 더 의아스 러웠던 것은 숫기라곤 없어 보이던 녀석이 그렇게나 간 지러운 수다쟁이라는 사실이었다. 줄줄이 써 내려간 말들이 한순간에 이해되고 말았지만, 그런 일이 일어 날 수 있다는 건 암만 생각해도 신통한 것이었다. 지구 와 달이 보이지 않는 중력으로 서로 묶여 있듯이 사람 과 사람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끌림이라는 게 있는 건 가. 서로 이끌리는 그 '사이'의 힘으로 너와 내가, 우리 가 있는 것인가.

돌아보면 다 '사이'의 일이지 싶다. 너와 나, 사람과 사람을 받치고 있는 것도 '사이'의 여백이 아닐까. 도무 지 알 수 없는 일들도 '사이'를 들여다보면 어렴풋이나 마 맥이 잡힌다. 그것은 드러나 있기보다 감춰져 있으 며, 채워져 있기보다 비어 있을 때가 많다.

가령 성공보다는 실패, 좌절, 혼돈, 외로움 같은 것. 기쁨보다 슬픔. 추억보다 상처. 그때는 몰랐으나 지금 은 알게 된 것들. 그런 연후면 내 삶도 조금은 가지런해 지는 기분이 든다. 사실 그런 시간을 거치지 않는다면 삶은 그저 무의미한 사건의 연속일 뿐이거나 흩어진 파 편에 불과할지 모른다. 서 말 구슬도 꿰어야 보배가 되 듯 우리의 삶도 유의미한 해석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리 라. 진실의 여백을 따라 사잇길 하나 마련해두고 가끔 은 그 길을 걸어볼 일이다. 조붓하게 열린 길을 따라 생 의 비의(祕義)를 풀어내듯….

無等鼓

우리말

"낱말책(국어사전)을 펼치면 숱한 낱 말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옛사람은 누구나 낱말책 없이 어버이한테서 말을 물려받았고,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자라 고 나면, 스스로 어버이 되어 새로운 아이 낳아 다시 말을 물려주었어요. 옛사람은 낱말책도 없었지만, 학교도 없었고, 책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두 해 아니고, 백 해 나 이백 해도 아닌, 또 천 해나 이천 해도 아닌, 만 해 십만 해 백만 해를 아우르면 서 말을 빚고 말을 나누며 말을 이었어

고흥에서 서재도서관 '숲노래'를 운영하는 최 종규 씨는 우리말꽃(한

국말사전)을 짓는 일을 한다. '보리 국어 사전' 편집장을 역임하기도 한 그가 최근 '숲에서 살려낸 우리말'을 펴냈다. 그는 한글을 뗀다고 '말 배우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낱말을 지은 사람들이 살아오며 느끼며 겪은 이야기를 담은 넋'을 배우는 것이라 했다.

올해 제577돌 한글날을 앞두고 한국리 서치와 국어문화원연합회가 흥미로운 조 사를 했다. 일명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가 그것인데, 막걸리를 주로 파

전 남 본 부 220-0680

는 '막끌리네'가 1위에 선정됐다. 2위에 는 목욕탕 이름인 '다 때가 있다', 3위에 는 죽 전문점인 '죽이 잘맞아'가 뽑혔으 며, 의류 수선 가게 '꼬메꼬메' 등도 상위 권에 진입했다.

하지만 외래어나 국적 불명의 신조어가 남용되는 사례도 있다. 얼마 전 광주일보 가 광주시와 5개 지자체가 추진 중인 사 업을 분석했는데 '氣 UP', '그림책 페어 런팅', '오로라 페스티벌' 등 한자어와 외 래어의 합성어, 의미가 불분명한 신조어

> 등이 눈에 띄었다. 사회 갈등의 상당 부분은 언 어 습관과 관련이 있다. 언어는 정신을 비추는

거울이기에 마음밭에 고운 말을 뿌리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

최종규씨는 말을 '이야기를 담은 넋'이 라했다. "예부터, '뿌린대로 거둔다'는 말 이 있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두 가지 옛 말은 시골에서 흙 만지던 사람들이 빚었 어요. 참말, 씨앗은 뿌린 대로 거둡니다. 콩을 심었으니 콩을 거두고, 팥을 심었기 에 팥을 거두어요."

/ 박성천 문화부장 skypark@

기 고



김용덕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본부장

얼마 전 한 일간지에서 의미있는 기사를 읽었다. 최 근 대학가에서 각광받고 있는 '셰어 하우스'에 대한 내 용으로 손자뻘인 대학생과 노인이 한 지붕에서 부대끼 며 살면서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삶이 성숙해 가는 모습을 소개했다. 하숙집과는 분명 다른 개념인 셰어 하우스는 각자 개별성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토대로 한 일종의 정서적 가족으로 다가왔다.

셰어 하우스는 청년의 주거 비용 절감과 노인의 고독 함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형태로 노령화와 더 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세대 갈등'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서울의 집값은 지방에서 유학 온 대학생들에게는 엄청난 부담 인데 그 비용을 확실하게 낮출 수 있고, 자녀를 출가시 킨 노인은 혼자 남은 외로움을 달랠 수 있어 주거복지 의 윈-윈 전략이라 생각된다.

해외에서는 하우스 셰어링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뤄 지고 있다. 영국의 옥스퍼드나 미국 서부지역 UCLA

세대 갈등과 셰어 하우스에 대한 단상

등 대학 도시의 경우에는 타지에서 공부하러 온 유학생 들이 나이가 들어 도움이 필요한 노인의 집에서 홈스테 이를 하면서 집주인을 부모님처럼 여기면서 함께 살아 가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외 특파원이 기사로 보도하 거나 가끔 영화의 소재로 쓰이기도 한다.

지난해 한국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세대 갈등이 심각 하다고 답한 이들은 81%에 달했다. 조사에선 세대 갈 등으로 20~30대 나이 어린 세대는 25%가, 60~70대 이 상 나이 많은 세대는 24%가 자신들이 피해를 본다고 응답해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절반 가량인 48%의 응답자가 나이 어린 세대나 나이 많은 세대 모 두 비슷하게 피해를 본다고 응답했다. 기성세대나 MZ 세대 모두 피해를 본다는 응답이 1년전 조사(37%)에 비해 11%포인트나 늘어난 것으로 세대 갈등의 폐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세대 갈등은 민주화 이전 세대인 기성세 대와 MZ로 대표되는 이후 세대 간의 역사적 경험의 차 이가 문제의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터넷 등 IT 발 달은 MZ 세대를 디지털 네이티브로 자라게 했고, 순식 간에 세대 갈등을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감자로 만들었 고 어느 순간 사회적 문제로까지 발전하게 했다.

기성세대가 '나'보다 '우리'를 우선하는 'WE 제너레 이션'이라면 MZ 세대는 나 자신이 더 중요한 'ME 제 너레이션'이라 하겠고, 기성세대가 위계질서 또는 서 열을 수용하는 '서열 세대'라면 MZ 세대는 수직적 서 열에 반감을 가지는 '수평 세대'라 할 수 있다.

기성세대가 빈곤한 유년기를 거쳐 청년기와 중장년 기에 풍요로운 생활을 하게 되는 '성장 세대'인 반면 MZ 세대는 풍요로운 유년기로 인생을 시작했다가 청 소년기에 IMF 구제금융과 금융위기를 경험하고 많지 않은 일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하다보니 취업과 결 혼 등이 어려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한 '불안 세 대'라고할수있다.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호 소 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세대 간의 접점이 마련돼야 한다. 한국 사회의 압축적 근대화에 따른 핵가족화와 도시화로 인해 가정과 사회에서 세대 간의 접점이 사라 지면서 상호 소통하고 이해할 기회 자체가 줄어들고 있 기 때문이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은 그동안 지역 어르신들의 행 복과 건강한 노후를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쳐왔 다. 이러한 세대간 접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빛고을 노인건강타운은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1, 2, 3세대를 아우르는 커 다란 복지공동체인 하나의 마을로 거듭나고자 한다.

그첫 시발점으로서, 선언적 의미에서 오는 11월 2일 '빛고을세대공감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다. 노대 뜰 에서 어린아이와 학생들, 지역주민 그리고 어르신들로 이뤄진 1,2,3세대가 자신들의 끼를 마음껏 발산하고 즐기는 축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세대 간의 간극을 조금이나마 줄 여봤으면 한다.

光则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정 치 부 220-0652 부 220-0692 경 제 부 220-0663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64

⟨FAX 222-8005⟩ ⟨FA X 222-019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